

# “ARS·면접조사로 결정”...심사과정 1명 추가 될 수도

## 국민의당 광주 임내현 의원 현역 첫 공천배제

국민의당이 9일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광주지역의 본격적인 경선 정국이 시작됐다. 조만간 예비후보 컷오프 대상자들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총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면접조사 결과 등을 통해 컷오프 대상자로 임 의원이 나왔다”면서 “오늘 당에서 임 의원에 대해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시행세칙에 사·도 등 광역 대상으로 하위 20%를 컷오프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에서는 현역의원 6명 중 1명인 임내현 의원을 컷오프 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임 의원은 지난 6일 예비 후보 공개 면접 당시 지난 2013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성적(性的) 표현’이 담긴 유머를 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공개면접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됐고, 임 의원이 “부덕의 소치이지만 성

## 현역 물갈이 사실상 마무리

## 임 “조만간 거취 밝힐 것”

## 수도권 차출 물 건너갈 듯

희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지만, 공관위원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컷오프 소식을 들은 뒤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의 부당한 결정에 얼마나 놀라셨느냐. 저 역시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10일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의도적으로 컷오프하려는 여러 정황들을 포착해왔다”면서 “우선 공식 표명을 한 뒤 거취 문제는 조만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공천 배제된 광주 북구을에는 최경환·이태림 예비후

보가 당내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1차 현역 컷오프로, 국민의당 광주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해영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현역의원 6명 중 물갈이 대상은 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컷오프 외에 심사과정에서 특정 항목 중 하나라도 D등급 이하를 받는 경우 과락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의 추가 탈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도권 출마 요구를 거부한 5선 전정배 공동대표, 3선 김동철 의원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의 지역구 고수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속의배심원제에 의한 지역경선에서 추가로 탈락자가 나올 수 있으나 지역정가에서는 현재까지 물갈이 폭이 예상이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오는 13일부터 경선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는 10일 추가 공천 탈락자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기자 cki@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이 9일 오전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공동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혹시 다음은 나? ...” 핸드폰 벨소리에 깜짝

## 더민주 2차 컷오프 발표 앞둔 광주·전남 의원들 불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9일로 예정됐던 초·재선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배제 결과 발표를 10일로 미루면서 광주·전남지역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현역 국회의원 경선 지역구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복수 후보지역 더민주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 이날 경선 후보로 발표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의원은 이윤석, 박해자, 신정훈 의원 등이다. 김영록, 이개호 의원은

경선 경쟁자가 없는 단수 후보다.

이날 공관위에서는 박해자 의원이 있는 광주 서구갑 선거구를 경선 지역에 포함했으나 비대위에서 제동을 걸면서 각종 루머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위에서 광주 지역 경선 후보는 함께 발표하기 위해 서구갑 경선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홍창선 공관위원장도 광주에 젊고 깜짝 놀랄 후보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더민주에 따르면 오는 11일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배제 결과를 발표할 것

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더민주 소속은 우윤근·김성곤 의원이며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와 관련, 전남지역 모 의원은 “혹시나 중앙당에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 벨만 울려도 긴장된다”며 “지역구를 들고 있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한편, 더민주에는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 갑에 김성곤 인재영입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더민주-국민의당 ‘자객공천’ 신경전 “심판대상 발표 정치 도의 아냐” “전략공천설 유포로 회유·협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상대방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른바 ‘자객(詐客)공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민주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겨냥해 ‘수구진박 및 친노패권·무능86’ 명단을 공개하며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치 도의상 안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은 각 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 “지금 무경도 안 열었다

데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다른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특위는 ‘수구진박 세력’으로 새누리당의 한선교(경기 용인수지)·홍문중(경기 의정부울)·김용동(서울 송파병)·윤성현(인천 남구울)·이정현(순천) 의원을, ‘친노패권·무능86 세력’으로는 더민주 이해찬(세종)·이목희(서울 금천)·정청래(서울 마포울)·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을 거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도 더민주가 국민의당 후보를 상대로 자객공천설과 함께 회유설도 퍼뜨리며 혼란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문병호 의원은 더민주 전략공천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에 영입인사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온 박주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권통합을 위해 보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짜주기인가, 회유 공작인가”라며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예술적 비례 만큼 비례대표들 제 몫 다하길



(147) 비례

비례대표, 여성 몫 비례, 청년 비례 등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가운데 하나가 ‘비례’인 것 같다. 어쩌다 보니 최근 정치 현장에서 빈번히 오르내리지만 ‘비례’는 서양 미술, 특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리스미술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던 그리스미술은 이를 위해 비례, 대칭, 조화, 균형이라는 엄격한 미적 기준을 적용했다. 기원전 5세기경 운동선수나 미남 선배대회 우승자의 인체를 모델로 작업했던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는 인체가 어떤 비례를 가질 때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했다.

작품 ‘큰 창을 맨 사람’(BC 450~440경)에서 보듯 폴리클레이토스는 수학적 질서가 적용된 법칙의 미가 존재

한다고 믿었고 머리가 신체의 7분의 1인 7등신을 가장 아름다운 신체 비율로 생각했다. 이러한 법칙이 충실히 구현된 ‘큰 창을 맨 사람’은 폴리클레이토스가 제작한 그리스 청동 원작을 로마 시대에 대리석으로 복제한 작품이다. 그는 당시에 비슷한 체격의 모델 이상백 명을 대상으로 인체의 각 부분들을 살펴 공통된 수학적 비율을 찾아냈다. 그리스 고전기의 조각들이 아름답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완벽한 비례의 추구 때문인지 모른다.

완벽한 비례를 찾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다양하게 진화한다. 기원전 4세기경에 활동한 조각가 리시포스는 7등신의 비율에서 벗어나 인체의 비례가 8등신일 때 눈으로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했다. 8등신의 비율을 대표하는 것은 밀로의 비너스상으로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게 만드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이야말로 최상이라 믿었다. 이후 중세시대의 정형화된 비례론에 이어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황금비례를 부활시켜 ‘신적 비례’로까지 이상화하기도 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져온 예술적 비례가 보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큰 창을 맨 사람’

끊임없는 노력이었듯이 정치의 비례대표제도 이상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의 제 몫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현대가 짓는 탁월한 주거공간

무등산의 자연과 편리한 생활인프라, (가칭)민주·인권·평화 복합센터(건립계획)의 미래가치까지-

# 광주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다! 힐스테이트 각화

3월 11일 일반분양 오픈

1 방문고객 증정 행사	2 청약자 경품 잔치	3 계약자 경품 잔치
일시 3월 11일 ~ 13일, 단 3일 내용 매일 선착순 100명 백화점상품권 증정 무료 네일아트 (10:00-16:00)	일시 3월 20일 오후 4시(예정) 장소 힐스테이트각화 견본주택 경품 LED 50인치 TV,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청소기, 전자렌지, 다리미	일시 4월 9일 오후 4시(예정) 경품 신형 대용량냉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55인치 TV

쾌 속 고 통 동광주IC와 제2순환도로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가능  
혁신 평 면 4Bay 평면(83m<sup>2</sup>, 84m<sup>2</sup>), 3면 개방형 평면(79m<sup>2</sup>, 84m<sup>2</sup>)  
미 래 가 치 (가칭)민주·인권·평화 복합센터(건립계획)로 더 높아진 가치  
브랜드대단지 최고층수 31층 규모의 총 740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59m<sup>2</sup> ~ 84m<sup>2</sup> 총 740세대 중 161세대

1899-1334

※ 분양 대상: 소외계층에게 우선 분양 대상이다. ※ 본 사업은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 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다. ※ 청약 대상: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 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다. ※ 청약 대상: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 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다. ※ 청약 대상: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 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다.